



『내가 왔다』
(방주현 시/난다 그림/2020/문학동네)

* 시를 한 편 따로 읽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가 들어있는 동시집 한 권 전체를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. 이렇게 동시집 한 권을 온전히 읽는 경험을 통해 시인의 작품 세계와 생각을 더 잘 알게 되겠지요. 그리고 동시를 더 가깝게 느끼게 될 거예요. 동시집 읽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합니다.

동시집 읽기 즐기는 방법

 시 고르기 마음에 드는 시 고르기, 이유 생각해보기	 시화 그리기 시를 옮겨 적고 떠오르는 이미지 그려넣기	 시로 글쓰기 시와 내 경험을 관련지어 글쓰기 또는 시 쓰기
--	---	--

1. 가벼운 마음으로 동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어봅니다. 그리고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시 5편을 골라봅니다. BEST 5로 순위도 정해보세요.

- 가족이 시집을 함께 읽고 5편을 골라봅니다. 서로 어떤 시를 골랐는지 비교해보는 활동도 해보세요.

순	제목	고른 이유

2. 시집에는 보통 제목이 된 시인 ‘표제시’가 들어있습니다. 그런데 이 시집은 특이하게도 시에 나오는 한 문장을 시집의 제목으로 썼습니다. ‘내가 왔다’는 <주전자>라는 시 속에 나오는 문장입니다. 왜 시집 제목을 <주전자>로 하지 않고 <내가 왔다>를 제목으로 정했을까요?

3.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을 소재로 해서 <주전자> 시를 <내가 왔다> 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. 그 전에 꼭 소리 내어 한 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. 시는 낭송해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. (참고: 뿌-뿌-는 주전자로 물을 끓일 때 물이 끓으면 나는 소리와 항구에 배가 들어올 때 배에서 나는 뱃고동 소리, 두 가지를 모두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)

원래 시	바꾸어 쓴 시
<p>주전자</p> <p>바다에 나가 고기를 한가득 싣고 올 꿈을 꾸던 쇠는, 주전자가 되어 보리차를 끓일 때마다 항구에 돌아오는 배가 된다</p> <p>내가— 왔다—</p> <p>뿌— 뿌— 뿌— 뿌—</p>	<p>내가 왔다</p>

4. 시를 외우면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. 가장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골라 암송해보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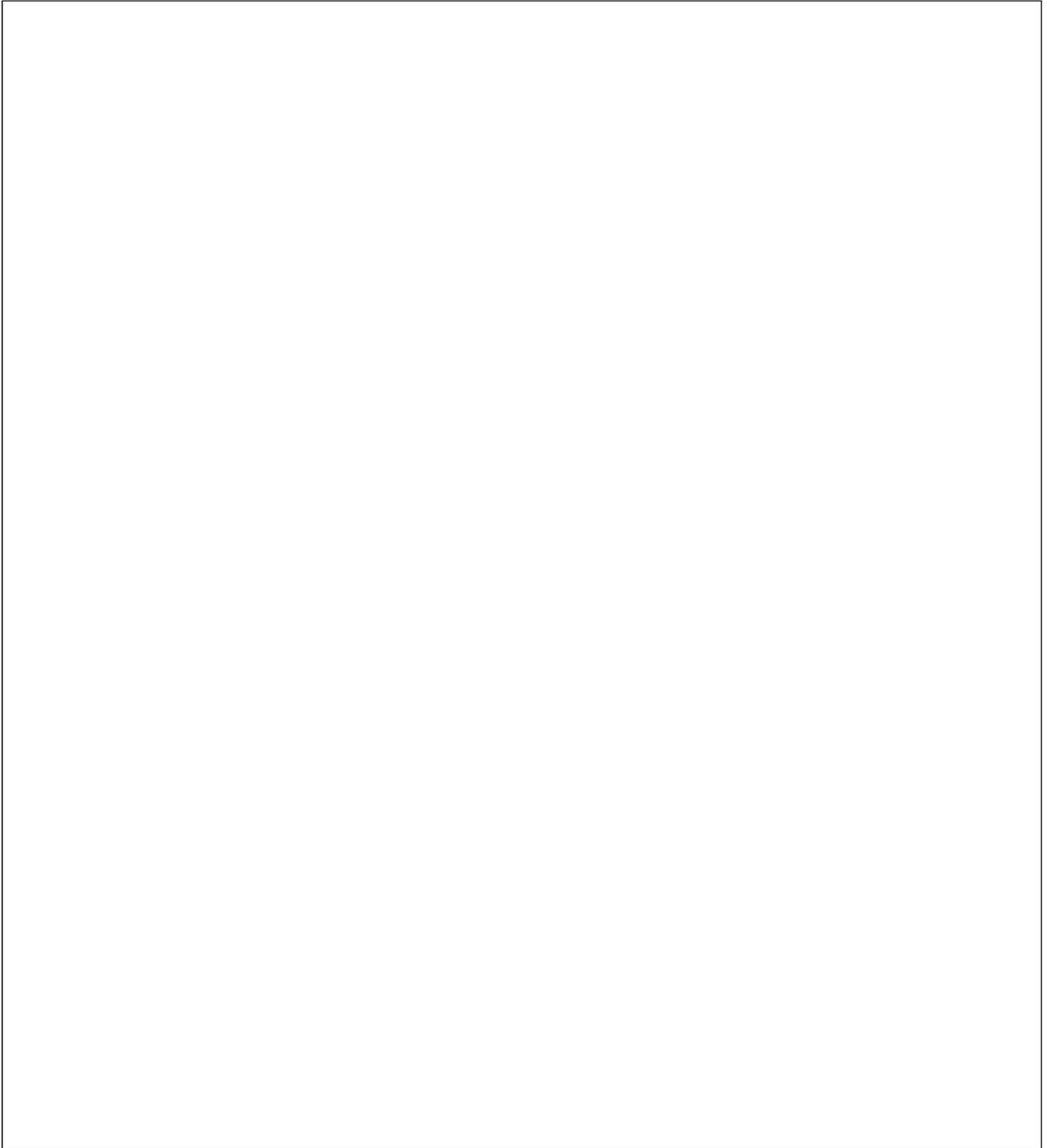
시를 암송하는 법

- ☼ 시 분위기에 알맞은 빠르기로,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읽어보세요.
- ☼ 시의 제목과 시인의 이름을 꼭 함께 읽고 외웁니다.
- ☼ 발음을 정확하게 합니다.
- ☼ 알맞게 끊어 읽습니다.
- ☼ 감정을 살려 읽습니다.

- 김소영의 『말하기 독서법』(다산에듀) 111쪽 참고-

※ 나만의 시를 쓰고 시화로 꾸며 봅시다.

(시와 어울리는 그림, 기호 등을 그려 넣어 멋지게 시화를 꾸며 봅시다.)

A large,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, intended for students to draw and write their own poetry and illustrations.